

< 대구서광교회 구역장 권찰 모임 >

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(2026년 일곱 번째 모임)

♡ 구역예배,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! ♡

- 서로 환영하면서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.
- 구역장님(혹은 구역식구 분들 가운데 한 분)이 구역예배를 여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.
-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(찬송가 190장 혹은 구역이 좋아하는 찬송).
- 주일 말씀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(에스겔 37장 1~14절, ※구역 1209쪽).
- 주일에 받으신 은혜를 아래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나눕니다.
 - “혹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?”
 -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, 기도가 메마르거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나요?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나요?
 - “주 여호와여, 주께서 아시나이다”(겔 37:3)
 - 에스겔은 “살 수 있습니다!, 불가능합니다!” 라는 대답이 아닌 이 대답을 했습니다.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? 내가 요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은 무엇인가요?
 - “형태는 갖추었으나 생기가 없었다”(겔 37:8)
 - 예배도 드리고, 성경도 읽고, 봉사도 하지만 가슴 속에 생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? 나에게 ‘성령의 생기(루아흐)’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요?
 - ”내 백성들아!“ (겔 37:12) -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!
 - 하나님은 말라비틀어진 이스라엘을 향해 ”실패자들아“가 아니라 여전히 ”내 백성들아!“라고 부르십니다.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고 싶은 ”마른 뼈 같은 자리“는 어디인가요?
- 말씀에 대한 나눔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기도제목들과 함께 아래의 기도제목들을 위해서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.
 - 우리 대구서광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소서!
 - 주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!
 - 항상 기뻐하는 교회,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,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!
 - 담임목사 청빙과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, 예비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소서!
 - 올해도 모든 구역 책임자들을 붙드시고 모든 구역들 가운데 영적, 양적 성장의 은혜를 주소서!
 -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주소서!
 - 입시생과 취준생 그리고 교회학교, 청년부, 3040세대 가운데 동행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소서!
 - 서광의 모든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, 모든 중직, 제직들이 기쁨의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!
 - 우리 대구서광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어둠의 세력이 틈 못 타게 하소서!
 - 서광의 성도들이 힘써 모이게 하시고,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 되게 하소서!
 - 구역 받아야 할 영혼들이 매주 찾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!
 - 대구의 복음화와 경제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!
 - 대한민국을 붙드시며 북한의 도발을 멈추어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!
 -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소서!
 - 미국&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소서!
- 주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구역헌금을 드립니다(찬송가 182장 혹은 구역이 좋아하는 찬송).
- 구역장님(혹은 구역식구분들 가운데 한 분)의 광고(주일 주보 참조) 후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구역예배를 마칩니다.^^